

아베노림픽스의 경제효과

- 아베 정권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아베노믹스의 '네 번째 화살'로써 '아베노림픽스'를 기대하고 있음
-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프라투자,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
- 도쿄올림픽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한·일이 협력을 하면 양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□ 아베노믹스 '제4의 화살'

- 2020년 7월 24일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결정됨에 따라 올림픽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'아베노림픽스'를 기대하고 있음
 - 아베노림픽스라는 용어는 다케나카 교수(게이오대학, 산업경쟁력회의 위원)가 명명, 아베노믹스가 올림픽의 상승효과로 탄력을 받아 경제성장이 가속될 것이라는 주장
 - 아베 총리는 올림픽 개최를 아베노믹스의 '제4의 화살'로 간주하고, 스포츠 행정을 일원화하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문부과학성 산하에 '스포츠청' 설치를 지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보임
- 아베 정권은 2020년을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삼고 있으며,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각종 목표를 2020년으로 제시하고 있어 2020년은 일본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
 - 예를 들어 △여성 취업률 73%, △세계 비즈니스 환경 랭킹 3위, △30조엔 규모의 인프라 시스템 수주, △중견·중소기업의 수출액 배증, △대내직접투자 배증 등

□ 예상되는 경제효과

- 미즈호은행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에 의한 경제효과는 아래와 같음

① 올림픽 개최에 따른 ‘직접효과’

- 일본 정부, 도쿄도에 의한 경기장 투자 등 인프라 정비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계에서 하드 이코노미(hard economy)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
 - 경기장 신설, 올림픽 관련 소비 등 신규수요: 약 1조 엔
 - * 시설정비 4,554억, 대회운영 2,050억, 관객 소비 2,074억, 기타 가계 소비 등 1,346억
 - 생산유발 총액: 약 2.5조 엔
 - 소득유발 총액: 약 0.6조 엔
 - 건설, 소매, 서비스업의 고용창출: 약 21만 명
 - * 건설 4.1만 명, 도매·소매 5.8만 명, 서비스 5.5만 명, 기타 5.7만 명

② 올림픽 개최에 따른 ‘부수효과’

- 일본과 도쿄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지고, 문화·생활·교류 등 소프트 이코노미(soft economy)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기대
 - 도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정책 추진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
 - * 2012년 올림픽을 개최한 런던은 그 해 세계 도시종합경쟁력 1위를 차지
 - 인프라 정비 가속,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
- 또한 ‘세이브 페이스(save face)’ 효과*로 일본 국내의 규제개혁이 촉진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
 - “올림픽을 위해 필요하다”라는 주장이 개혁압력으로 작용하면, 규제완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을 기대
 - * 캘리포니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50년간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는 올림픽 전후 무역이 약 3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개혁이나 자유화를 추진한 것이 주요요인이라고 분석
- 도쿄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이후, 일본기업들은 ‘2020년 경영체제’를 강화하여 건설기업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올림픽 비즈니스에 착수하고 있어 아베노리믹스가 순풍을 탈 것으로 보임

- 미쓰코시이세탄 백화점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인재 채용 확대, 영어 메뉴판 및 지도 등을 준비
 - * 세이로카(聖路加)국제병원도 외국인 환자를 위해 안내 및 통역 전담부서를 설치, 7개국 언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을 충원
- 소니는 4K/8K 텔레비전을 강화, 닛산자동차는 2020년까지 자동운전기술을 실용화하는 등 제조업에서도 올림픽 효과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

□ 시사점

- 규제완화 및 자유화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더 빠른 속도로 TPP 타협을 추진할 환경이 마련되어 우리나라의 TPP 전략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
 - 세이프페이스 효과로 TPP 참여 정당성을 주장하는 세력이 확대되면 일본 정부는 TPP타결을 가속화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참가하기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음
- 우리나라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때문에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연계하여 한·일이 협력하면 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임
 - 한·일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하여 미국이나 유럽의 관광객을 평창 동계올림픽과 일본 관광(2020년은 도쿄 올림픽과 한국 관광)을 세트로 한 패키지 상품의 공동개발 및 홍보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협력이 가능
 - * 한국어·일본어 통역자의 상호 파견, 홈스테이 서비스 등을 통한 한·일 교류 확대 및 관계 개선 협력도 기대
 - 해외 출전 선수들을 위한 훈련시설 공동 활용, 베이스캠프 유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,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됨

<참고자료>

Diamond Online(2013.9.10), 닛케이비즈니스(2013.9.13, 11.25), 산케이신문(2013.9.18), 미즈호종합연구소(2013.9.27.)

<참고>

<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>

	직접효과	부수효과	마이너스 요인
개 최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▼ 건설투자 증가 (경기시설, 선수촌 등) ▼ 소비지출 증가 (관련 상품, 가전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▼ 주가·지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▼ 해외관광객·국제회의개최 등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미지 개선과 진흥책 등 상승효과 ▼ 도시 인프라 정비 가속·민간 투자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공 인프라 정비 등 가속 · 민간투자(호텔·상업시설 리뉴얼 등) 활성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▼ 공급제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올림픽과 관련 없는 건설사업 지연 ▼ 대체 효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올림픽과 관련 없는 소비지출 억제 ▼ 자산취득 비용 증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택취득비용 등 증대
개 최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▼ 대회운영 지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각종 운영비, 정보 시스템 등 ▼ 올림픽 관광객 지출 (숙박, 교통, 외식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외로부터의 관광객 지출 · 국내여행자 지출 ▼ 소비지출 증 (관련 상품, 가전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▼ 지방 관광객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외관광객의 지방 관광 유발 ▼ 스포츠 관련 지출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올림픽으로 촉발된 지출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▼ 일반 관광객 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혼잡·체류비용 등에 의한 일반 관광객 감소 ▼ 비 개최지(지방)의 관광객 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쿄 집중으로 매출 감소 ▼ 대체 효과(올림픽과 관련 없는 지출 감소)
개 최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▼ 시설의 전용(공원 등)에 의한 유효활용 ▼ 개최지역의 재개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▼ 관광객의 추세적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올림픽 성공에 의한 이미지 개선 ▼ 도시 경쟁력·생산성 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프라 정비·민간투자 활성화 ▼ 스포츠 관련 지출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올림픽으로 촉발된 지출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▼ 투자 완료·올림픽 붐 종료에 따른 경기 감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프라 투자 증가·가전 매출 증가에 대한 반동 감소 등 ▼ 시설유지·관리·처분 비용 문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타 지출 자원 압박

자료 : 미즈호종합연구소 (2013.9.27)